

하이트진로, 테라 1.9리터 대용량 페트 출시

하이트진로가 청정라거-테라의 1.9리터 대용량 페트를 선보였다. 고물가 시대에 맞춰 용량은 키우고, 출고가는 인하여 가성비 높였다. 익숙한 그립감을 유지하기 위해 페트 규격 역시 1.6리터 페트의 지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높이만 소폭 확장했다. 기존 1리터, 1.6리터 페트와 함께 총 3종의 대용량 페트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7일 전북 현대 모터스의 홈구장인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경기 중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응원하는 대형 플래카드가 설치된 관중석에서 축구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차그룹

원·달러 환율 1390원 돌파

美 인플레이 공포 ↑ ... 전 세계 증시 동반 급락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당분간 긴축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14일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390원을 돌파했다.

美 증시, 2년 3개월 만에 최대 하락 CPI 상승으로 고물가 장기화 예상 1%p 인상하는 울트라스텝 제기돼 향후 환율 1500원까지 돌파 전망도



● 시장 기대치 상회한 미국 8월 CPI

먼저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76.37p(3.94%) 내린 3만 1104.9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77.72p(4.32%) 하락한 3932.69, 나스닥지수는 632.84p(5.16%) 떨어진 1만1633.57에 장을 마쳤다. 3대 지수 모두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6월 11일 이후 2년 3개월 만에 하루 최대 폭 하락이다.

국내 증시 상황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8.12p(1.56%) 내린 2411.42, 코스닥은 13.86p(1.74%) 하락한 782.93에 마감했다. 이밖에도 일본 닛케이225지수와 홍콩 항셱지수가 2% 이상 하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보였다.

이는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물가가 정점을 통과(피크아웃)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꺾이고, 고물가 상황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 등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8월 CPI는 전년 동월보다 8.3% 상승했다. 6월 9.1%에서 7월 8.5%로 내려온 이후 두 달 연속 둔화했지만 시장 전망치인 8.0%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3%,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에 대한 충격이 컸다.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 에너지 물가가 많이 떨어진 대신 주거비용과 식품물가, 의료비용이 치솟은 것이 전체 물가를 높은 수준에 머물게 한 것으로 보인다.

● FOMC, 3연속 자이언트스텝 초읽기

이제 관심은 20, 21일 열리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쏠리

고 있다. 이미 6, 7월 연속으로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75%p 인상)을 밟은 데 이어, 3연속 자이언트스텝이 확정적인 분위기다. 최근 잭슨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밝힌 패라(동화긴축 선호)적 발언에 이어, 이번 미국 8월 CPI도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 기준금리를 한번에 1%p 인상하는 울트라스텝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악순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미 금리의 역전을 낳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외국인 자본 유출이 원화 가치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14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73.6원)보다 17.3원 오른 1390.9원에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30일(1391.5원) 이후 약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 향후 1400원을 넘어 1500원 돌파까지 염두에 뒀어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고환율이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시간을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돼 고물가의 원인이 되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TF 회의를 열고 "주요국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정상화 스케줄 등에 주의하면서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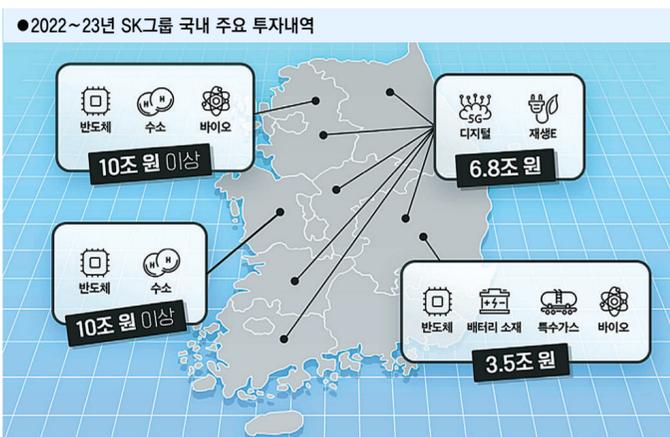
SK그룹, 향후 5년간 비수도권에 67조 투자...국내 시설 투자도 본격화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지방에 투자 국내 공장 증설·신규 착공에 73조 R&D에 25조 원 투자해 기술 확보

SK그룹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향후 5년간 6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SK그룹은 또 올해와 내년까지 기존 국내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규로 착공하는 등 시설 투자에 모두 7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SK그룹 주요 관계사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R&D에 25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SK그룹은 14일 핵심 성장동력인 반도체(Chip), 배터리(Battery), 바이오(Bio) 등 이른바 BBC 산업의 국내 기반 시설과 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내 투자 및 R&D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SK그룹은 향후 5년간 국내에 투자하기로 한 179조 원 가운데 비수도권에 67조원을 투자해 지방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투자 분야는 ▲반도체·소재 30.5조 원 ▲그린 22.6조 원 ▲디지털 11.2조 원 ▲바이오·기타 2.8조 원 등으로 SK그룹의 핵심 성장동력에 맞춰져 있다.



SK그룹이 비수도권에 향후 5년간 6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또 올해와 내년까지 기존 국내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규로 착공하는 등 시설 투자에 모두 7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SK그룹 2022~2023 주요 투자 내역. 사진제공 | SK그룹

SK그룹은 최근 SK하이닉스가 향후 5년간 청주에 신규 반도체 생산 공장인 M15X(eXtension)에 15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SK실트론, SK(株)머티리얼즈, SK E&S 등의 사례가 대표적인 비수도권 투자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SK그룹은 최근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관계사의 성장기반

인 국내 생산시설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와 내년까지 2년 동안 모두 73조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단행될 국내 투자 역시 ▲반도체·소재 48.7조 원 ▲그린 12.8조 원 ▲디지털 9.8조 원 ▲바이오·기타 2.2조 원 등 'BBC(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산업'에 집중돼 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에 약 5조 원을 투자해 5G 등 유무선 통신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SK E&S는 내년까지 전국에 약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 및 도시가스 시설을 구축한다.

아울러 SK그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향후 5년간 ▲반도체·소재 22.1조 ▲그린 0.8조 ▲디지털 1.2조 ▲바이오·기타 1.1조 등 R&D에 2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편 SK그룹은 BBC 산업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만 3000명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 채용 규모인 8500명보다 50% 늘어났다. 특히 배터리 사업은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000명 이상을 채용했다.

SK 관계사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SK그룹 핵심 전략산업의 생산 기반인 국내 시설을 지속적으로 신·증설하고, R&D에도 대규모로 투자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국내 고용을 창출하고 소재·부품·장비 등 이른바 소부장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된 중장기 투자는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현대차,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기아 타이거즈·전북 현대 통해 알린다

홈구장에 플래카드 설치...유니폼에 엠블럼 패치 부착

현대차그룹이 그룹사 스포츠단과 공식 글로벌 SNS를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국내외 붐 조성을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8월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그룹 차원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전담 조직(TF)을 꾸리고, 전방위적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더러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야구단 '기아 타이거즈'와 축구단 '전북 현대 모터스'와 함께 다양한 유치 활동을 추진한다.

기아 타이거즈는 13일부터 홈구장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내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응원합니다'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 등을 설치해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선수들은 이날부터 유니폼 오른쪽 상단에 'WORLD EXPO 2030 BUSAN, KOREA'라고 적힌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엠블럼 패치를 부착하고 경기에 출전했다.

전북 현대 모터스 역시 지난 7월말 홈구장인 전주월드컵 경기장에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대형 플래카드 등을 설치했다. 선수 유니폼에 부산세계박람회 엠블럼 패치를 부착해 팬들과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한 글로벌 홍보에도 적극적이다.

현대차그룹은 영문 및 국문으로 세계박람회 행사의 국제적 위상과 중요성, 부산의 경쟁력과 비전 등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부산이 세계박람회의 최적지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아울러 부산세계박람회 관련 쿼즈·응원 댓글 이벤트 등 다양한 고객 참여 SNS 이벤트를 통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대표 스포츠를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부산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차그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개인정보 불법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 구글·메타, 과징금 1000억... '역대 최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가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692억 원, 메타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해 왔다. 플랫폼이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를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